

지척에는 성범죄자 살고 경비도 CCTV도 없어 통학버스 노후화 심각

광주 초등 8곳 주변 성범죄자 10명 이상 거주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불구 예방 대책 소홀 통학버스 5대 중 2대 폐차 수준 '위험한 질주'

학교 지척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지만, 학교엔 경비도 CCTV(폐쇄회로TV)도 없는 곳이 수도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학버스 5대 중 2대는 폐차해야 할 정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에 따르면 광주 시내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초등학교 43곳, 중학교 7곳 등 총 50개교다.

이들 학교 중 2곳을 제외하고는 주변 1km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성범죄자는 273명으로 초등학교는 1개교당 5.4명, 중학교는 5.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2곳에는 주변에 성범죄자가 10명 이상 거주하고 있어 위험요소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

어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는 성범죄자가 12명이나 살고 있었다.

전남은 초등학교 89곳 중 43곳, 중학교 23곳 중 12곳 등 절반 가량의 학교에서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학생안전강화학교 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간 범죄에 대비한 적외선 CCTV 보유율이 50% 이상인 학교는 광주 12곳(24%), 전남 44곳(39.3%)에 그쳤다. 또 지자체와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해 전문인력이 24시간 학교 주변 위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학교는 광주 30곳(60%), 전남 29곳(25.9%)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은 경비인력을 배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자원봉사자 신분의 '배움터지킴

이'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시스템 부재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2009년 2150건에서 2010년 2447건, 2011년 2629건, 2012년 3441건, 2013년 341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학생 통학용 버스 5대 중 2대는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통학버스 운행거리별 비교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통학버스 66대 중 27대가 승합차 폐차 기준인 20만km 이상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중 2대는 폐차해야 할 수준으로 노후화했다는 것이다. 광주 S초등학교 통학버스는 70만2114km를 달리는 등 60만km 이상 주행한 차량도 2대나 됐다. 이들 차량은 이미 폐차수준을 넘어야 하지만 버섯이 학생들을 태우고 위험천만할 질주를 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불안한 학교...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사람잡은 무단횡단

광주서 16차선 도로 건너다
차 치어 2명 사망·1명 중상

새벽에 술을 마시고 중앙부리대가 설치된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3명이 차에 치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7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역회관 앞 편도 8차선 중 1차선에서 박모(48)씨 등 3명이 안모(22)씨의 랜더로버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박씨와 지인 이모(여·47)씨 등 2명이 숨지고 박씨의 직장동료 장모(44)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들은 무역회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무역회관 앞에서 반대편 방향인 농협 방향으로 가려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너비 80m 도로인 사고 장소는 지난 5년여 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3명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경찰은 상무지구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급정거했다는 운전자 안씨의 진술로 미루 무단횡단하던 박씨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기용기자 pbxer@
최승렬기자 srchoi@



할머니 손 예쁘게 해드릴게요 7일 오전 광주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한마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할머니들의 주름진 손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명령하듯 권위적이고 때론 목소리 안들려요”

대학생들이 본 법원·검찰

'명령하듯 권한 위력 분위기, 재판에 지각하거나 좋고 하품하는 변호인,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듯한 작은 목소리...'

광주법원을 비롯, 전국 23개 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방청한 사법박사단 소속 대학생들 2361명이 평가한 법원·검찰의 분위기다.

이들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는 각 항목별로 대학생들의 눈에 비친 판·검사, 변호사 등의 인상을 엿볼 수 있다. 항목에 따라 응답자 수가 다르지만 대학생들의 법원, 검찰에 대한 인상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학생 모니터링단의 8.7%(276명)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거부감을 느꼈고 모니터 요원 1654명

다른 재판 상호 방청 등

국민과 눈높이 맞추기 고심

중 203명(12.3%)은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에 지각하거나 재판 도중 좋고 하품하는 판·검사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취조하는듯한, 무시하는 듯한 발언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물론, 법원, 검찰 대부분이 이런 건 아니다. 재판을 지켜보다 보면 상당수 판사들의 경우 당사자들에게 진술거부권, 항소 여부 안내, 판결문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시작한다. 광주지법 A판사의 경우 재판 당사자들에게 선고에 앞서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이 과거 저지른 죄로 인해 자리에 선 만큼 판결 결과나 수사기

판에 대해 원망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식이다. 피고인들에게 '반성 편지 쓰기'를 제안해 양형을 정하는데 감안하는가 하면, 재판 일정을 당사자 입장에서 조정하기도 한다. 임정영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세월호 재판에서 피해자 증인과 관련,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감, 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형사소송규칙 등을 모니터에 띄워 자세히 설명했다. 듣고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 가족들을 다시 불러 친절히 설명해주는 판사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재판부별로 다른 재판을 방청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조인하는 상호 방청도 이뤄지고 있다. 검찰도 겸손·배려·경청의 이미지로 고압적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병언 금고지기' 김해경씨 미국서 추방 한국으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해경(52·여) 한국제와 대표가 7일 미국에서 강제추방돼 한국에 도착했다.

형량 및 배심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미국에서 도피생활하다가 체포

된 지 한 달여만이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현상 2차장검사)은 김씨가 이날 오전 2시 35분(한국시간)께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 094편에 탑

승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김씨는 자진 귀국이 아닌 강제 추방 형식으로 송환됐다.

김씨가 현지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민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김씨를 태운 비행기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연형뉴스

새벽 재미삼아...현우 수거함 방화



○새벽에 재미삼아 현우 수거함에 상습적으로 불을 낸 지적장애인이 경찰서형.

○나주경찰에 따르면 김모(26)씨는 7일 새벽 3시20분께 나주시 남동동 나주순복음교회 앞길에 있는 현우 수거함에 불을 냈으나 바람에 불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이모(34)씨의 아반떼 승용차로 옮겨 붙으면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이날 하루 세 차례에 걸쳐 현우 수거함에 불을 지른 혐의가 있다.

○경찰은 현우 수거함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김씨는 "불을 지르면 기분이 좋아졌다"고 회심수술.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여수 울촌산단 폐수 바다 유입 의혹

주민들 민원 제기...조사 착수

여수 울촌산단에서 폐수가 흘러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여수시 울촌면 주민들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울촌산단 폐수 처리장 인근 우수관로에서 지난여름부터 치러진 갈색의 폐수로 보이는 물이 흘러나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민원이 주민들에 의해 수차례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수차

례에 걸쳐 폐수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이어 지난 6월에도 우수관로를 통해 또 폐수 추정 액체가 흘러나왔다며 정확한 규명작업을 요구했다.

울촌면 주민 A씨는 "수차례 진한 커피색 물이 우수관로에서 나온 것을 본 목격자가 여럿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어민들 사이에선 최근 바지락 폐사 원인이 오염된 폐수로 추정되는 물질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khh
/여수=김정희기자 chkim@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건물

-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900만 주안직접 운영시 1,800만 수익발생
매가 13억 (보2억 용5억)
-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2층 상가건물 영신중고교, 대덕 APT앞**
건물 135평 1.2층 80평(2칸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보증금3천 월 200만원 용1억) 매가 2억8천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용1억8천)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됨
매가 3억1
-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 건 500평 월수익 900만
매가 10억
- 북구 옹동동 8층 건물 1층 상가 58개 삼성전자 앞** (보증금 2억, 용1억)
오피스텔 (월세 3000만 수익) 매가 35억

(주)대신 010-6670-98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헤드라인.

근/린/시/설
· 광주 북구 양산동 (토지774㎡, 건1031㎡) 감평가 16억1천 / 최저가 11억3천 (신건)투자적합
·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780.2㎡, 건1992.57㎡) 감평가 24억7천 최저가 13억8천 (유할1회)투자적합
· 목포시 삼락동 (토지221.5㎡, 건548㎡) 감평가 3억7천
· 진도군 성대리 (토지49㎡, 건99.02㎡) 감평가 8천6백 / 최저가 4천8백 투자적합
근/린/주/택
· 광주 서구 금호동 (토지197㎡, 건362㎡)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3억6천 (유할1회)투자적합
· 광주 북구 임동 (토지126㎡, 건178.61㎡)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9천2백 (유할1회)투자적합
· 광주 동구 학동 (토지235㎡, 건436.74㎡) 감평가 3천6백 / 최저가 3천6백 투자적합
· 광주 북구 본촌 (토지36.67㎡, 건172.74㎡) 감평가 3천9백 / 최저가 1천4백 투자적합
숙/박/시/설
· 광주 서구 양동 (토지176.9㎡, 건481.16㎡) 감평가 2억7천 / 최저가 1억5천 투자적합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478.7㎡, 건928.74㎡)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투자적합
오/피/스/텔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6.6㎡, 건24㎡) 감평가 2천4백 / 최저가 2천4백 (유할1회)투자적합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42.826㎡, 건190.68㎡)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1억 (유할5회)투자적합
공 장
· 광주 광산구 허남동 (토지1734㎡, 건2635㎡) 감평가 14억 / 최저가 8억(유할1회)투자적합
대 지
· 광주 광산구 생암동 (토지3974㎡) 감평가 44억 / 최저가 44억 투자적합
· 광주 북구 용봉동 (토지787㎡) 감평가 1억3천 / 최저가 7천3백 (유할1회)투자적합

경매 직원구함, 공동 사무실 쓰실분
경매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간접, 시황, 설계, 부동산관련 전체를 취급합니다.)
부동산 직원구함 남·녀 실장(여성 자격증 소지자 급여제 가능), 경리구함

(주)대신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후분2분
신축4층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 전대상대 교통공단 5분
룸14개(주인세1개)
매가 6억4천
- 전대상대 1분
룸12개
매가 6억 (호반APT앞)
- 전대 정문 1분
룸18개 (상가1층 2칸 만실)
월수익 700
매가 8억 4층 코너
- 전대정문 1분
룸19개
4층 주택 1개
엘레베이터 완비
월수익 800
매가 12억

062)527-7600

상가임대

- 2층 상가임대 25평 전대정문 2분
모아APT앞, 사차선 대로변 내부시설 완비
즉시 입주, 관리비 없음 (보300, 월38만)
시설약간있음
- 커피숍 중심사 1층임대 80평
계곡점함, 중심사등산길 가는길 (시설약간있음)
(보3천, 월300만)
- 노래방 임대 상무지구 지하 80평 룸7개 (시설3천만)
(보5천, 월150만)
- 중화요리 임대 상무지구 1층 80평
월수익 2천만
거래처 인계함 (보5천, 월200만)
- 상가임대 물건다량있음

010-6832-9700

오피스텔 매매(수익상가)

- 동구 수기동(제일오피스텔)6층(48평)
천변쪽 방향 전망좋은 내부시설 올리모델링완비
즉시입주(임대가능, 보 1천 월70만, 용5천)
48평 매가 1억3천 ▶ 1억1천만
- 서구 상무지구(수림오피스텔)6층(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완료 (보 300만, 월33만, 용1천3백만) 매가 5천만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19평 내부시설 완비, 즉시입주가능 (보 500만, 월45만, 용2천2백만) 매가 8천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2층(11평)
원룸형 온천역 2분 내부시설완비,즉시입주가능
전세가격으로 원룸을 매입 월세로 노후 보장가능 (보 200만, 월27만, 용1천만) 매가 3천5백만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정연오피스텔)3층(30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완료, 한국은행 앞 현대 APT앞편 (보 1천만, 월70만, 용8천만) 매가 1억1천만
- 수원지구 1층(19평) 대방 5차 APT 후분 (보 3천만, 월130만, 용2억5천만) 매가 3억5천만
- 수원지구 3층(85평) 한솔빌딩
신한은행 뒷 모이엘가 A3가방 (보 3천만, 월200만, 용2억5천만) 매가 3억5천만
- 수원지구 3층(62평) 엠스타 롯데마트 옆 (보 2천만, 월150만, 용9천만) 매가 2억5천만
- 수원지구 2층(62평)대상오션스파 부영 APT 앞 (보 1천만, 월70만, 용9천만) 매가 1억7천만

신한 010-6832-9700